

LG화학, 영업이익 40% 확대

증권사, 2/4분기 7319억원 추정 ... 매출은 8% 늘어 4조원대

LG화학(대표 김반석)은 2/4분기 영업이익이 73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국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LG화학의 2/4분기 영업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,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국제회계기준(IFRS)으로 각각 4조7402억원과 7319억원으로 파악됐다.

매출 4조3859억원에 영업이익 5271억원을 기록했던 2009년 2/4분기에 비해 매출은 8.1%, 영업이익은 38.9% 증가한 수준이다.

매출 4조4231억, 영업이익 6524억원을 올린 2010년 1/4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이 7.2%, 영업이익이 12.2% 증가했다.

집계에 참여한 증권사는 대신, 대우, 동양증권, 미래에셋, 하나대투, 한국투자, NH투자, SK 등 8곳으로 LG화학은 7월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대비 1000원(0.31%) 오른 32만5500원에 마감했다.

LG화학은 GM 및 포드(Ford)와의 계약 등 중대형 2차전지 분야의 잇따른 호재에 힘입어 7월8일부터 연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시가총액 5위였던 삼성생명을 제치고 빅5 자리를 굳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7/19>